

녹색기후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환경계획, 독일국제협력청

국가능력배양 지원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2016.11.30, 송도 - 녹색기후기금(GCF)이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독일국제협력청(GIZ)과 능력배양기본협정(Readiness Framework Agreements)을 체결함에 따라, 세 기관은 이제 GCF 능력배양 사업시행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었다.

GCF가 승인한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활동 중 20개는 세 기관이 사업시행 파트너를 맡는다.

협정으로 GCF는 총 540만 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며 해당국가는 승인된 능력배양 활동 이행을 할 수 있다.

각 기본협정에 따라 UNDP는 첫 착수금으로 방글라데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 인도, 라이베리아, 콩고 공화국, 동티모르, 스와질랜드 능력배양을 위해 135백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우세이노 나쿨리마 GCF 국가프로그래밍 국장은 “UNDP, UNEP, GIZ와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능력배양 프로그램 접근과 국가와 GCF 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 이행이 촉진될 것이다.” 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또한 국가가 GCF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가적응계획(NAPs)과 기타 적응계획과정 개발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UNDP, UNEP와 협력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UN환경 부사무총장은 “협정 체결로 이제 GCF 사업시행 파트너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GCF 재원을 직접 접근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개발도상국 수는 알바니아에서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50개 이상이다. UN 환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에 더하여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매우 기대가 크다.” 고 말했다.

GCF는 국가 주인의식과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배양 활동을 조기 지원 하고 있다. ‘국가 능력배양’ 자금지원은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GCF의 효과성을 최대화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감축과 적응을 모두 다룬다. 지원 사업별로 한 해에 한 국가당 최대 1백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적응계획과정을 위해 국가 별로 추가로 3백만 달러 지원이

가능하다.

UNDP 글로벌 환경 재정부 책임코디네이터는 “GCF와 능력배양 기본 협정을 체결하여 매우 자랑스럽다. 우리 기관은 기후재정 능력배양에 있어 개도국을 오랫동안 지원해왔고, GCF 능력배양 지원이 수요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GIZ 기후변화 환경 인프라 부서 과장은 “GCF와 기존에 수행하던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기본협정 체결도 기대된다. 국가가 GCF에 접근하고 자국의 기후변화·개발 우선순위에 맞춰 GCF 재원을 효과적, 효율적,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원문 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gcf-concludes-framework-agreements-with-undp-unep-and-giz-to-support-country-readiness?inheritRedirect=true&redirect=%2Fnewsroom%2Fnews>